순창, 미래먹거리 사업발굴 총력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진흥 포럼' 개최

순창군이 13일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분야인 한국형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육성 방향 모색을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진흥 포럼을 개최했다.

순창군과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농림축산식품부 박치형 사무관를 비롯 관련 분야 국내외 대학교수 및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 중앙부처 관계자를 비롯, 관련분야 연구센터 연구원과 대학원생 등 학계, 산업계 관련자들이 대거 참석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진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미생물군집과 유전체의 합성어로 미생물군 유전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 동식물, 토양, 축산 등에 공존하는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 전체를 의미한다. 특히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기술을 세계 10대 유망 미래기술로 선정하며 국내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미국 텍사스대학 장우석 교수 발표를 비롯, 국내외 대학교수와 관련분야 연구센터 연구원 등 총 4명의 발표자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대한 정책 및 육성전략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포럼 말미 패널토론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전략산업육성'이라는 주제로 좌장인 전북대 정용섭 교수의 진행으로 김동수 원장(전북생물산업진흥원), 임성일 책임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 최경민 부장(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유강열 원장(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정도연 원장(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김평일 기획실장(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유용미생물은행과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시설 및 연구기반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은행 허브로써의 위치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사업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 건립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가사 및 간병 방문지원 확대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추가

남원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가사·간병서비스는 1개월에 24시간 또는 27시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가사 또는 재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소, 세탁, 취사, 식사 도움 등을 제공받는다.

가사·간병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로써,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나,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확대사업으로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추가되면서 오는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비용은 월24시간 이용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월27시간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월 1만1340원, 월 40시간(C형)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인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다. 신청 희망자는 연중 시 주민복지과(063-620-6856)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남원시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노인 건강진단 실시

남원의료원은 남원시와 연계해 오는 9월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진단은 90여 명의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차 검진은 기본진료, 혈액검사, 혈청검사, 흉부X선 촬영, 치매검사 등 13개 항목이며, 1차 검진결과 2차 진단 대상자는 흉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등 31개 항목으로 2차 검진을 실시한다.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노인 건강진단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시가지를 가로 흐르는 요천 둔치에 대단위 종합물놀이장을 만든다.

남원시, 요천에 종합물놀이장 만든다

내년 6월 개장 목표… 6000㎡에 총 사업비 93억원 들여

남원시가 시가지를 가로 흐르는 요천(국가 하천) 둔치에 대단위 종합물놀이장을 만든다고 밝혔다.

종합물놀이장은 요천 둔치 6000㎡에 총 사업비 93억원을 들여 시설하는 것으로,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음악분수+바닥분수, 광장+물놀이장 등이 시설되어 여름에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물놀이 시설체험과 볼거리가 제공된다.

남원의 젖줄인 요천은 연중 풍부한 수량과 맑고 깨끗한 수질로 물놀이시설을 만들자는 시민들의 여론이 제기돼 왔으며, 남원시는 종합물놀이장을 개장해 피서와 문화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레저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물놀이장은 시내권 관광벨트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관광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소리체험관, 김병종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관광형 모노레일과,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서 예촌마당과 함파우소리체험관으로 도착하는 짚와이어 설치사업이 2021년 완공되면 명실상부 동적인 관광도시 남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남원시는 오는 17일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을 주재로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 음악분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심의를 갖고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기술제안 및 공법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의에서는 물놀이 분수광장조성 중 음악분수시설에 대하여 수경시설 업체 제안서에 대한 분수연출(음향+조명 포함) 제어시스템 호환 등 요천과 어우러진 공법을 점검한다. 남원시는 선정된 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오는 17일부터 8월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에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20명의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 기간 산림 내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와 산간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 단속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불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유림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메아리

농어촌공 전주·완주·임실지사 임실군에 장학금 3백만원 기탁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심덕섭)는 13일 군수실을 방문해 임실군 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심민 군수에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심덕섭 지사장은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 이번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지역과 함께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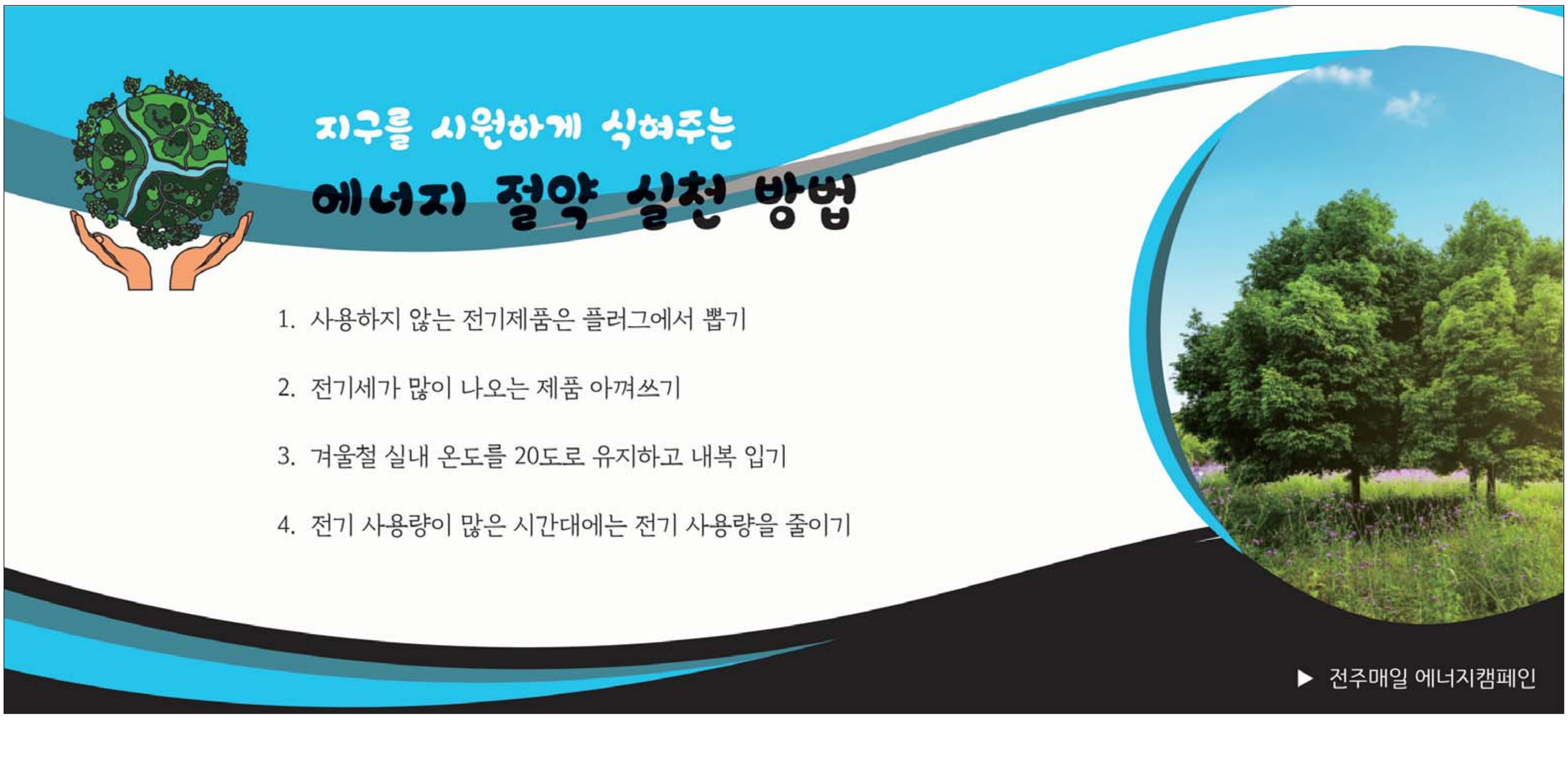
심민 군수는 "임실군 장학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봉황인재학당을 구심점으로 장학사업을 확대 운영해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명품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의회, 119안전체험관 방문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체험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 의원들은 13일 전북도119안전체험관을(임실군 소재)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정지, 기도폐쇄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인명 구조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신대용 의장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임실군의회 의원 모두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충실히 받아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처리 대응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명확히 숙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